

“우리 엄마 살려나라”...탑승객 가족 대기실 ‘통곡의 바다’

“제발 생존자 명단에 있기를” 간절한 기도...“생일 축하 말할걸” 후회
“신원 확인 어렵다” 당국 발표에 “가족들이 직접 보게 해달라” 호소도

여객기 착륙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탑승객 가족 대기실에서는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오전 11시께 무안공항 관리동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탑승객 가족대기실에는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탑승객 가족들은 생존자가 있다는 말에 “생존자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을 거라”고 중얼거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일부 가족이 “왜 아무 말도 안해주냐.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다는데, 살 가능성이 없는데 왜 아무 말도 안해주냐”고 울부짖자 사방에서 통곡이 터져나왔다.

한 여성은 “우리 엄마 살려나. 아무 잘못 없는 엄마 살려나”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탑승객 가족들은 승객 명단에서 가족들을 발견하고 탄식을 내뿜었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잘못됐을까 몇 번이고 다시 이름을 확인했다. 형이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한 남성은 “아직 형수에게 말도 못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며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못했다. 그때 축하한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울먹이며 고통스러운듯 머리를 감쌌다.

한편 제주항공과 관계당국의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지체되자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한 유가족은 “사고 발생 4시간여가 지나도록 제주항공 직원 3-4명만이 가족들에게 대응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후 1시 30분께 가족 대기 장소가 공항동 1층 대합실로 옮겨지고 나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가족 대기 장소에 책임자가 없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가족들은 뉴스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가족 일부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며 찾게 빠르지 않겠나. 가족들이 더 잘 알아볼 것 아니냐”고 호소했지만, 당국은 “사고로 인한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고만 대답했다.

사고 발생 이후 수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유가족들은 ‘임시 유가족 회의’를 구성해 직접 관계 당국과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협의를 통해 유족 일부가 사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뒤늦게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가족의 이름을 들은 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주저앉았다. 최초 알려진 명단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이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남성은 국토부 관계자를 향해 “처음에는 아버지가 명단에 있었는데 지금 부른 명단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다”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냐. 책임질 수 있냐”고 항의했다.

유가족이 자체적으로 ‘임시 유가족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거세게 항의하고 나서야 오전부터 요구해온 사고 현장 방문이 오후 5시에서야 일부 이뤄지고, 사망자 신원 명단 게시 또한 수시간여만에 이뤄졌다.

한 유가족은 “하루종일 목이 터져라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유가족이 직접 가서 시신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면 집에서 뉴스 보는 시청자와 뭐가 다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9일 오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유가족이 두손모아 기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시간이 안 맞아 인천공항 이용했어요” 사고 비행기 피한 여행객 아찔한 순간

“어쩌면 우리가족이 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거주하는 정혜련(여·42)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방콕 가족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씨는 25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29일 돌아오는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를 이용했다. 친구 가족, 남편, 초등생 자녀 3명과 함께 연말 가족여행차 방콕을 3박5일 자유여행으로 다녀온 것.

정씨는 이날 타고 오기로 했던 비행기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기체였다고 아찔한 순간을 설명했다.

정씨는 “광주에 살면서 인천공항까지 오고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려고 알아봤

었다”며 “예매하기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출발 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비행기를 예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소식을 지인의 연락을 통해 접했다.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차 안 정씨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로 복새통이었다.

자녀의 담임선생님은 정씨의 자녀가 방콕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어 곧장 안부를 확인했고 남편의 회사에서도 사고 인원 파악과 긴급한 전화가 왔다.

정씨는 “처음 뉴스를 봤을 때 사망자가 20여명이라 더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우리가 다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믿을 수 없어” 사망자 명단 바라보다 쓰러지기도

“최초 명단과 이름 다르다”
유가족들 강력 항의·분통

29일 제주항공 참사 탑승객 가족 대기실에서는 사망자 신원 확인 명단 차례로 발표되자 명단을 확인한 유가족들의 울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유족은 무안국제공항 1층 대기실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며 사망자 이름에서 가족을 찾았고, 한 유족은 “우리 엄마 이름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유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게 1분 가량 명단이 띄워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유족 요청에 따라 30분 단위로 브리핑을 열어 수습 인원과 신원 확인 사망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국이 지문과 소지품 등을 통해 사망자 신원을 확인했지만 탑승객 중 일부의

시신은 크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림에 지친 일부 탑승객 가족은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당국이 이날 오후 3시께 발표한 브리핑과 명단이 달라 곳곳에서 고성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여성은 “왜 최초 명단과 이름이 다르냐”며 “전광판이 있으면 지금 당장 붙여달라. 사망자가 몇 명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분노를 표했다.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당국은 뒤늦게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에 공개된 신원 확인자 명단은 같은 성의 가족 단위 승객이 많다는 점에 눈에 띄었다.

전광판에 신원 확인자 명단이 띄워지자 탑승객 가족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족이 있는지 부리나케 달려가 명단을 살펴봤다.

한 여성은 남성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빠 어떡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계속해서 흐느꼈다.

이후 당국은 유가족 측이 명단에 사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지적하자 신원 확인자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구조됐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 승객 대다수는 태국 방콕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광주·전남 지역민들로 알려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소로 36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 열 | 모 집 단 위 | | 모 집 인 원 | |
|---------|--------------------------------|-----|---------|--|
| | 학 과 | 수 시 | 정 시 | |
| 인 문 사 회 | 신 학 과 | 30 | 5 | |
| | 한국어교육학과 | 1 | 1 | |
| | 복지상담융합학부 | 24 | 5 | |
| 사 범 | 유아교육과 | 8 | 2 | |
| 예 능 | 음 악 학 과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1 | 8 | |
| | 총 계 | 84 | 21 |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